

슈퍼버그 우리의 삶을 위한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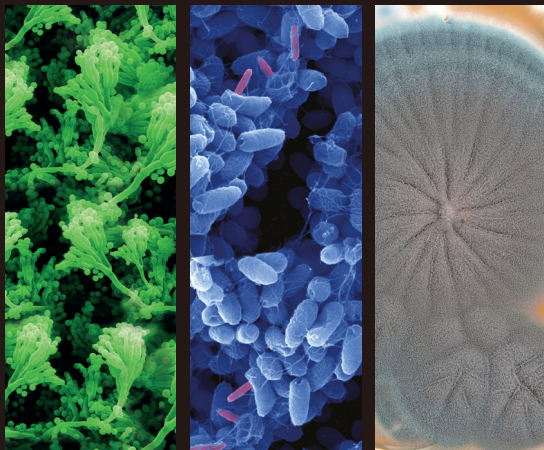
SUPERBUGS

THE FIGHT FOR OUR LIVES

지난 70여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항생제. 이러한 필수 의약품들 통해 인류는 해로운 세균을 없앨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으며 한 때 치료가 불가능했던 다양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균들이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균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위험한 '슈퍼박테리아'로 변신해 세계 각지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항생제 내성으로 인해 2050년까지 매년 천 만 명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류는 다양한 혁신적인 해법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류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의학적 과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과학박물관 초청 특별기획 슈퍼버그특별전
지금 바로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
National Science Museum

SCIENCE
MUSEUM
GROUP

SUPERBUGS
SUPERBUGS
SUPERBUGS
SUPERBUGS
SUPERBUGS
SUPERBUGS
SUPERBUGS
SUPERBUGS
THE FIGHT FOR OUR LIVES

슈퍼버그
: 우리의 삶을 위한 투쟁

기간 : 2020.1.10 - 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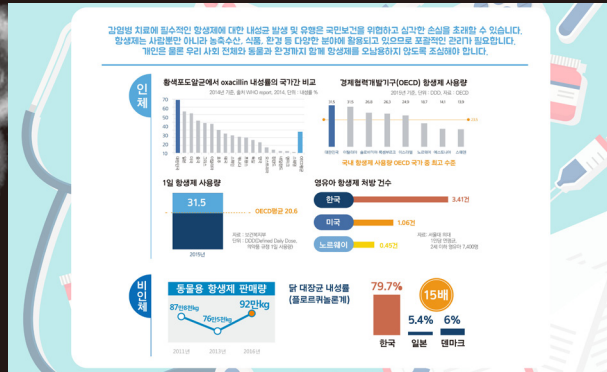
장소 : 국립중앙과학관 창의나래관 1층

0 슈퍼박테리아

20세기 의학의 기적, 항생제 : 약일까? 독일까?

항생제란 병원성 세균을 죽이거나 증식을 막는데 사용하는 약입니다. 세포벽이나 세포막의 합성을 억제하는 방법, 세포가 번식하는 데 꼭 필요한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는 방법, 핵산이나 엽산 등의 합성을 억제하는 방법 등으로 항생제는 우리 몸에서 나쁜 세균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항생제를 통해 인간은 세균과 싸울 수 있었고,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생제를 오남용하면서 항생제에 저항성을 띄는 항생제내성균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버그는 강력한 항생제에도 죽지 않는 세균을 의미합니다.



- 1 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항생제에 대한 내성균 발생 및 유행은 국민보건을 위협하고 심각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 식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포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개인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와 동물과 환경까지 함께 항생제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 2 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 항생제 적정 사용 + 내성균 감염 확산 차단 +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
- 3 알송달항 항생제: 항생제에 관한 오해와 진실 / 질병관리본부

1 숨겨진 세계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중 보건 위협으로 지정한 슈퍼박테리아들 : 대장균, 폐렴구균, 표피포도구균, 엔테로박터 클로아케, 녹농균,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 폐렴막대균, 황색포도상구균 임균, 장구균



2 세균의 전파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새로운 항생제를 찾는 세계 각국의 노력



다제내성 결핵의 치료.
아이칩 (iChip) : 박테리아 배양기.
세균감염 치료를 위한 코모도 도마뱀의 혀와 열정.
가위개미가 만드는 항생제

3 세균의 전쟁터

유해한 세균과 싸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



세계 최초의 항생제 : 페니실린
세균을 잡아먹는 세균 : 델로비브리오 박테리오포루스
세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 : 박테리오파지
세균을 죽이는 별 모양의 단백질 : SNAPPs

4 슈퍼박테리아의 시대에 산다는 것

슈퍼박테리아를 막고 유용한 항생제를 오랫동안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



임원환자, 의사, 감염관리 간호사, 스마트 디자이너, 양돈업자, 동물복지 운동가 등

5 함께 지켜주세요

항생제 내성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와 국제협력, 그리고 우리들의 실천

세계 항생제 인식 주간(World Antibiotic Awareness Week)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 내성이 인류가 당면한 공중보건의 최대 위기 중 하나로 경고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과, 가족동물, 환경을 포괄하는 국가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항생제의 적절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주를 '세계 항생제 인식 주간'으로 지정했습니다.



동참해주세요!!

미래를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생명을 구합니다.
우리들의 미래를 지킵시다.
항생제를 올바르게 사용합니다.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는 생활]

- 첫째 반드시 의사가 처방한 경우에만 항생제를 복용하겠습니다.
- 둘째 처방받은 항생제는 반드시 용법과 기간을 지켜 복용하겠습니다.
- 셋째 남겨둔 항생제는 증상이 비슷하다 하여, 임의로 먹지 않겠습니다.
- 넷째 항생제는 다른 사람과 나눠 먹지 않겠습니다.
- 다섯째 손씻기를 통해 개인위생을 청결히 하고 예방접종을 통해 세균감염 질환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병원 항생제 처방률 검색]

심평원의 "병원평가정보"를 확인하세요.

폐의약품 수거사업 남은 의약품은 약국으로 보내주세요.

